

러시아, 연이틀 미사일 집중 포화

에너지 시설 노려... "30% 타격"

우크라 방어망 가동에도 1명 사망 서방 첨단 방어시스템 지원 나서

러시아가 11일(현지시간) 또다시 우크라이나 곳곳에 미사일 포화를 쏟아부었다. 우크라이나가 상당수를 공중에서 요격했으나 민간인 추가 희생은 막지 못했다.

연이틀 이어진 공격으로 발전소 등 에너지 기반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최첨단 대공방어망 시스템을 서둘러 공급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 주도 자포리자에는 학교, 의료시설, 자동차 전시장 등 민간 시설이 이른 오전부터 약 40분간 집중 공격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 1명이 숨졌다. 키이우 남서쪽 빈니차에서는 러시아의 드론이 현지 발전소를 2차례 연이어 타격하면서 6명이 다쳤다. 1차 타격 이후 구조대가 투입된 상황에서 2번째 타격이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고 현지 당국자는 전했다.

서부 르비우에서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면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자국 전역에서 러시아군 미사일 14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수도 키이우에서 격추한 미사일 2기도 포함됐다.

또 우크라이나 공군사령부는 흑해 연안에서 이란제 드론 8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격추로 발생한 폭발음이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에서 들렸다고 WSJ은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추가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부분 봉쇄령이 내려진 키이우에서 상점, 카페 등은 문을 닫았고 도로에는 자동차도 자취를 감췄다. 대부분 주민은 집·대피소 등에서 휴식 모를 추가 공격에 대비해 신경을 바짝 곤두세웠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러시아는 하루 전에도 미사일 총 84기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총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사망자 19명, 부상자 105명이 나온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간시설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 CNN은 이틀간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체 에너지 관련 시설 가운데 30%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헤르만 할루센코 우크라이나 에너지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에너지 기간시설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전쟁 후 처음"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전력을 유럽에 수출하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가스·석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할루센코 장관은 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상황은 아직 안정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방에 호소한다. 우리는 하늘을 사수해야 한다. 시설 보호에 도움이 되는 대공보호 시스템을 제공해 달라"며 "러시아, 그들은 국제법에 따르는 경기를 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국제 협

약이나 조약 그 어떤 것도 신경쓰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후 대공 방어망이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전쟁 직후엔 노후화된 구 소련제 대공방어망이 전부였고, 그나마 최근에야 서방에서 지원한 첨단 방어체계를 배치한 상태다.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 이후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공방어망 시스템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첨단 대공방어시스템 제공을 약속했다. 미 국방부는 첨단지대공미사일체계(NASAMS-나삼스) 2문을 앞으로 2개월 안에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6문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독일도 우크라이나 제공을 약속했던 자국산 방공시스템 IRIS-T 4문 중 1문을 이날 인도했다고 독일 슈피겔지가 전했다. 프랑스 국방부도 우크라이나에 대공방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는 특히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루마니아에 파병 규모를 확대하고, 리투아니아에 전투기를 추가 배치하는 등 동유럽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은 러시아의 전방위 미사일 공격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지지와 과시하기 위해 이날 화상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G7 정상은 러시아의 민간인 공격을 '전쟁 범죄'라고 규탄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브라질 대선 결선 앞두고 유세 펼치는 룰라 브라질 대선에 출마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1일(현지시간) 리우데자네이루주 베투포르드호슈에서 지지자들과 손을 잡으며 유세하고 있다. 지난 2일 실시된 1차 투표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한 룰라 전 대통령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은 오는 30일 결선에서 맞붙게 된다. /연합뉴스

“美 본토 北 ICBM 방어 요격체계 강화 시급”

보수 싱크탱크 전문가 지적

북한의 증가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에 맞춰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패터-제인 갤러 선임 연구원은 11일(현지시간)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칼럼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며,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갤러 연구원은 “북한은 이르면 10월 중순 7차 핵 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는 단탄두 탑재 가능 장거리 미사일 능력 성숙과 더불어 북한의 핵 능력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특히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미사일 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중한다”면서 “한미가 역지력 강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 체계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어체계를 강화하면 북한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미국의 제어 반경이 넓어진다”면서 “본토

가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시점수행 등 전략자산 배치를 한층 담대하게 압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을 포함한 ‘불량 국가’들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상배치 미사일 방어체계(GMD)를 마련,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44개의 요격 체계를 배치중이다.

갤러 연구원은 “문제는 미국의 본토 방어 미사일 개발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 여부”라며 “우리는 이미 북한 정권이 다탄두 탑재 가능 미사일을 개발했고 실전 배치 역량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현재의 GMD를 압도할 수 있는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도록 할 수 있다”며 “현재 국방부가 차세대 요격 체계 개발을 진행중이지만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방부에서 44개의 요격 미사일 수명을 연장하고 추가로 20개의 차세대 요격 미사일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우주선 충돌시켜

소행성 궤도 바꿨다

첫 지구방어실험 성공 확인

지구와 부딪히는 코스에 있는 소행성에 우주선을 충돌시켜 궤도를 바꾸는 인류 최초의 지구방어 실험이 성공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11일(현지시간) ‘쌍(雙) 소행성 궤도수정 실험’(DART) 결과, 소행성 다이모르포스의 궤도 변경을 확인했다며 인류가 처음으로 천체의 움직임을 바꿨다고 발표했다.

빌 넬슨 NASA 국장은 이날 워싱턴DC 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DRAT가(소행성의 공전 주기를) 11시간 55분에서 11시간 23분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전주기 단축 시간은 당초 NASA가 추정 한 10분보다 큰 32분으로 측정돼 지구 방어실험의 주요 목표가 달성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넬슨 국장은 “이것은 행성 방어를 위한 분수령이고 인류에게도 분수령의 순간”이라며 “NASA가 행성의 수호자로서 진지하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DART 프로그램 담당 과학자인 톰 스테틀러는 “우리는 수년 동안 이것을 상상해왔고 마침내 현실이 됐다”고 기뻐했다. /연합뉴스

베네수엘라 산사태·수해 현장 구조작업



1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아라과주 라스테헤리아스의 산사태·수해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9일 발생한 산사태와 홍수로 최소 36명이 숨지고 56명이 실종됐다. /연합뉴스

미국인, 강달러에 유럽서 명품 ‘싹쓸이’

LVMH 3분기 실적 ‘대박’

최근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초강세로 미국인들의 구매력이 커지면서 세계 최대 고가 패션브랜드 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루이비통·디오르·불가리·티파니 등을 보유한 LVMH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난 197억6천만 유로(약 27조50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 성장률은 시장 전망치(컨센서스)인 13% 증가를 넘어섰다.

특히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패션·피혁제품 매출이 22% 성장, 시장 전망치인 16%

증가를 웃돌았다. 지역별로는 미국 내 매출 증가율이 11%로 전 분기보다 두 배 높았지만, 유럽 내 매출은 3% 급증했다.

세계 최대 명품 소비시장인 중국의 매출 성장률은 6%로 상하이 등 대도시가 코로나19로 봉쇄됐던 전 분기들보다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WSJ은 미국인 관광객들의 유럽 내 소비 증가와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혼란 진정을 이 회사 호실적의 배경으로 꼽았다. 연초만 해도 1.1달러 위에 있던 1유로와 가치는 이후 빠르게 하락해 3분기에 20년 만에 1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장 자크 귀오니 LVMH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몇 달 새 미국인들이 달러화 강세를 이용해 유럽에서의 소비를 늘리면서 회사 사업의 중심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랑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MG골프클럽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5층 MG문화센터 회원 大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